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위로와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모든 은혜를 평생 값없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감사에서 오고, 성공도 감사에서 오고, 기적도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잘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서서 춤을 추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온도를 높이면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의 모든 문제들도 감사의 온도를 높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사의 온도를 높이면 우리 가정의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 나라의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 나누어지고 대립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이 싸매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중추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를 나눌 때,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올라간 영적 면역력으로 가정과 나라와 시대를 지키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301, 446, 559장 (중 택1)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그리스도인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소하게 드러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2020  
중추절  
감사예배

예 배 순 서		
---------	--	--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찬 송 ..... 304, 384, 589장 (중 택1) ..... 다 같 이

성 시 교 독 ..... 다 같 이

인도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회 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인도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회 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회 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다같이: 여호와를 선편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아 멘 -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기 ..... 도 ..... 가 족 중

좋은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사 민족의 명절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지만, 바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고, 값없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고, 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였으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가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 멘 -

성 경 봉 독..... 시 136:23-26 .....인 도 자

사] 136:23-26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 ..... 감사의 온도를 높입니다 ..... 인 도 자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중추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이 감사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스물여섯 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수도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스물여섯 가지를 나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감사를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어가는 전통 중 하나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고,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저주의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맥추절, 칠칠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수장절)로 광야생활 40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감사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